도요보 - 조직 개편으로 세 가지 중점 섬유 사업의 추진 방향 명시

도요보의 섬유 사업 본부는 2004년 10월 자동차 자재, 생활·산업 자재, 제품화의 세 사업이 중점 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섬유 사업의 추진 방향을 명시하면서 조직 개편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의료(衣料)용 텍스타일의 영업·생산·개발을 완전히 일체화하면서 제품화 사업과도 연결되는 복합 소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텍스타일 파이버 개발부가 가장 중요한 미션을 담당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도요보는 2002년 4월에 섬유 사업 본부를 발족하였는데, 생산·개발에서는 원래 천연 섬유와 화합섬이 분리된 상태였으나, 이번의 조직 개편으로 의료 관계는 천연 섬유와 화합섬을 완전히 일체화하였는데, 이는 도요보 창설 이래로 처음이다.

또한 섬유 사업 기획실 밑에 중국 섬유 사업소를 두는 것도 최초의 시도이다. 다만 본사 기능일 뿐이므로, 가능하면 적절한 시기에 섬유 사무소를 주재원 사무소로 바꿀 예정이다.

2004년 상반기의 섬유 단체 업적은 여성 의료 등과 같은 채산이 안맞는 품목의 축소로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수익은, 에어백 관련 사업 등을 확대시켜 2~2.5배로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원·연료(原·燃料)의 가격이 급상승하였으므로 수익은 예산에 미달될 것이다. 통기(通期)로는 판매고 970억엔, 영업 이익 40억엔을 계획하고 있는데, 2004년도 하반기에는 상승한 원·

연료 가격을 한편으로는 자체 내에서 흡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산 원가에 전가하느냐가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다. 당초 계획을 밑돌 가능성이 커서 어떻게든 수익에서는 전년 실적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